

# Newsletter

July 2013

Vol.21

## Canada Wood & Architecture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2013. 7. 9 ~ 7.26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www.wooddesign2013.kr

### 01 Korea Director's Memo

한국-캐나다 우드디자인 공모전(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Best 5)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more

### 02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여행의 설렘과 지적 충만으로 가득했던 열흘 간의 소중한 기억들

두근두근, 궁닥궁닥, 공모전 수상의 기쁨과 함께 덩달아 찾아오는 해외 연수의 기회는 여행과도 같은 일탈의 설렘 .....more

캐나다 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에서 목재로 된 건축물은? 하면 사람들은 먼저 한옥을 얘기할 것이다. 더불어,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more

### 03 국내 목조건축 사례

블루웍스 출판사

북촌은 지난 수년간의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활력 있어 보이는 .....more

### 04 해외 목조건축 사례

캐나다넷제로홈

한국에 그린홈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넷제로(Net Zero)홈이 있다. 모두 주택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취지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린주택이다. 그러나 실현방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more

### 05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6월 활동사항

4월 4일~25일 충북대학교 건축학부 목조 건축 특강

4월 13일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14기 개강

4월 30일 CWK-GICO-DSK 기술협력 약정 체결

5월 7일~9일 캐나다우드 아시아 매니저 회의 참가

5월 11일 SFS INTERNATIONAL FAIR 서울외국인학교 인터내셔널 페어 참여

5월 27일~28일 알버타주 Dan Wilkinson 국장 방한

6월 3일 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 'Best 5' 수상작품 발표

6월 24일~28일 경남과학기술대학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06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계획

7월 8일 우드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캐나다우드 & 건축전' 개막식 개최

7월 9일~26일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개최

7월 12일~26일 9인9색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7월 19일 (사)한국건축가협회 - 캐나다우드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8월 26일~30일 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 BEST 5' 수상작품 실물 제작

9월 23일~29일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9월 23일~29일 2013 부산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9월 27일 부산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 [전시회 일정]

8.29(목) ~ 9.1(일) / KINTEX

33회 MBC 건축박람회

8.29(목) ~ 9.1(일) / EXCO Hall B

제9회 하우스브랜더페어(주계)

8.29(목) ~ 9.1(일) / EXCO Hall A

2013 서울국제건축박람회

9.5(목) ~ 9.8(일) / EXCO

대구경향하우징페어

9.26(목) ~ 9.29(일) / EXCO

부산경향하우징페어

# Korea Director's Memo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대표



한국-캐나다 우드디자인 공모전(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Best 5)은 한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주한캐나다대사관의 'CELEBRATION 2013'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다.

'숨쉬는 나무, 내가 쉬는 나무' 라는 슬로건으로 양국간의 소통을 위한 교류와 만남의 친환경 목조 Shelter공간에 대한 설계 공모로, 총 28개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학생 팀으로 구성된 98개 팀이 1차 접수를 한 후, 그 중 19개 대학 47개 팀의 작품이 접수되어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원인 손기찬 (건축사사무소 동이), 송재승 (건축사사무소 미추), 조남호 (솔토지빈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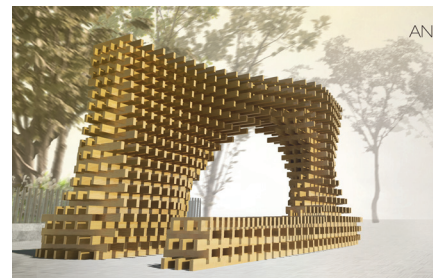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세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10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각 팀의 작품설명 공개심사를 통해 BEST 5와 FINALIST 5가 6월 1일에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BEST 5, FINALIST 5 10작품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참가한 모든 작품 하나 하나 모두 의미가 있고 작품성 또한 매우 흡족할 만큼 뛰어났다는 심사위원들의 총평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젊고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미래의 건축가 학생들의 참신한 설계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깊은 관심사를 교류하는 전국 28개 대학을 연계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드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은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Canada Wood & Architecture)' 특별 전시를 통해 9인 9색 건축가 특별전에 초대된 국내 유명 건축가들의 목조건축 작품들과 함께 7월 9일부터 26일 까지 전시가 되며, 전시 기간 중 건축가 9인 9색 목조주택 이야기 세미나,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및 어린이 나무 체험 마당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들과 어우러지게 된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이다. 금번 공모전을 통해 목조건축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환경국가의 으뜸가는 애국자임을 재확인하였다. 다시 한번 금번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목조건축의 발전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공개심사에서 작품 설명 중인 학생들



'Another Tree' Best 5\_ 캐나다우드, 주한캐나다대사 특별상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anada and Korea

## Canada Wood & Architecture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2013. 7. 9 ~ 7.26**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  
Korea Foundation Cultural Center Gallery

울지로 3가역(2호선) 1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울지로 3가역 1번 출구로 나와 울지로 갈구 방향으로  
왕계천변을 따라 오시면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관람 Admission Free

Canada

##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여행의 설렘과 지적 충만으로 가득했던 열흘 간의 소중한 기억들

홍욱의 (201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수상)

두근두근, 쿵닥쿵닥, 공모전 수상의 기쁨과 함께 덩달아 찾아오는 해외 연수의 기회는 여행과도 같은 일탈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비행기의 착륙과 동시에 나타나는 생경한 이국의 풍경은 기대에 들뜬 마음을 더욱 부채질해주었고, 현지 시차 적응을 위한 간략한 시내 투어는 앞으로 진행될 연수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 다짐케했다. 이어, 마침내 도착한 근사한 숙소는 장시간 비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고, 시내 중심에 위치한 숙소덕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밴쿠버의 경치는 내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다음 날, 우리는 강의를 들으러 출발했다.

따뜻한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현재 지어진 캐나다 목조 건물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작은 단독 주택부터 리치몬드 오벌 경기장과 같은 거대한 시설물까지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나무의 유연한 쓰임에 놀랐다. 풍부한 목재자원을 바탕으로 천연 목재와 공학 목재를 응용하며 짓는 캐나다의 선진 기술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다. 문득, 지난 학부 수업들 중 목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없었던 것이 아쉽기도 했다.

이론과 현장을 오가며 연계된 프로그램은 강연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캐나다 경량목구조의 기본 재료, 구법 및 공법을 들었던 강의는 가장 유익했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대개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께겐 다소 기초적인 내용이었겠으나, 몇가지 요소들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아오던 것들을 현장을 통해 기본 구성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이는 마치 흩어진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듯한 즐거운 배움이었다. 1형 장선, 구조 벽체의 통기, 방수막, 차음, 방재기술들은 목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참 모르는 아이같은 나의 사소한 질문들에도 꼼꼼한 대답을 해주시는 주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연수는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달콤한 주말이 지나고, 점차 규모가 큰 건물들을 만나게 됐다. 다세대, 중층, 고층 건물들의 강의에서는 공학목재를 통한 목조의 한계를 확장하는 건물들을 만났다. 공학 목재가 나타나기 이전에 지어진, 150여년의 시간을 버텨낸 중층 목조 건물을 강연에서 보고, 이어 그날 저녁 선배님들과 함께 그 건물에 위치한 펍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분위기 만큼이나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한아름을 훨씬 넘는 굵은 각재들과 군데군데 시간이 묻어 갈라진 빔들이 이루는 육중한 공간감 속의 즐거운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만 같다.

기밀시공의 절정의 기술!! Super-E를 만나는 것은 캐나다 목조 건축에 공극의 기술력을 보는 듯 했다. 저에너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부재끼리 짜맞추는 목구조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기밀 시공 기술은 모두의 눈과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듯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목조 현장을 보고 배우는 경험은, 그동안 내가 자폐적으로 생각하던 '건축'이라는 영역의둘레가 넓어진 듯 하다. 사실, 내게 현장은 대개 낯설었다. 설계를 공부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건물의 내용과 구성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레 우리는 도면을 통해 머릿 속에 이미완성된 건물로공간 연결지어 떠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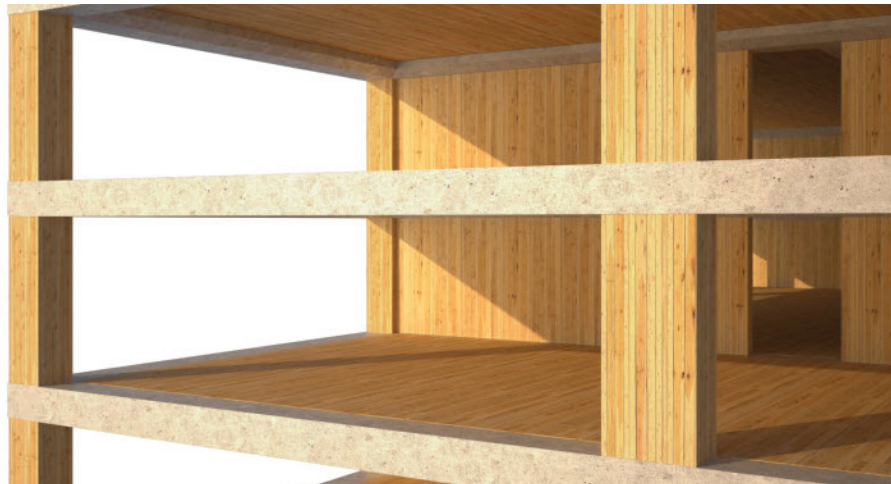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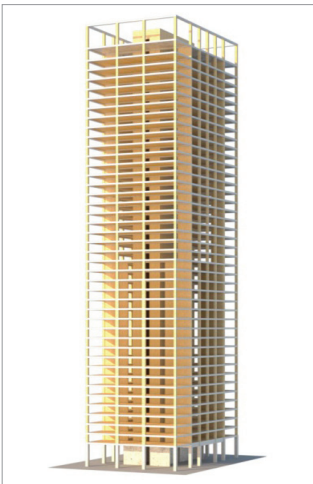
내게 익숙했고 천착하고 있었던 '건축'은 계획 이전과 완공 이후의 모습을 만나고 상상하는 일에만 그쳐져 있었다는 스스로의 반성이 들었다는 말이다. 물론, 설계와 시공으로 나뉜 지금의 건축 교육 시스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법 하겠지만, 건물의 구체적 성능과 가시적지표들로 의미를 갖는 건물들 또한 많다는 것, 이 목조 연수가 학생으로 참가하는 것이 크나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인 '좋은 건물'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을 만났고, 다시금 이는 내게 건축 계획 이후, 짓는 과정에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를 다져보아야 하겠다는 결심해본다.

즐겁고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캐나다우드 황전무님과 황팀장님, 항상 곁에서 꼼꼼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세규형님과 손이사님께 이 글을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행복했던, 설렘과 지적 충만으로 가득했던 연수를 추억하면 아직도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연수 후,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는 마음가짐이 어느때 보다도 푸른 기대로 부풀어 오른다.



## Did you know

- **42층** : 최근 SOM이 연구 발표한 고층건물을 위한 목구조 시스템이 적용된 기존 건물의 층수
- **60 ~ 75%** : 목재 이용으로 철근콘트리트와 철골 구조에 비해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



\* 사진 : SOM (<https://www.som.com/publication/timber-tower-research-project>)

##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 참가 후기 캐나다 연수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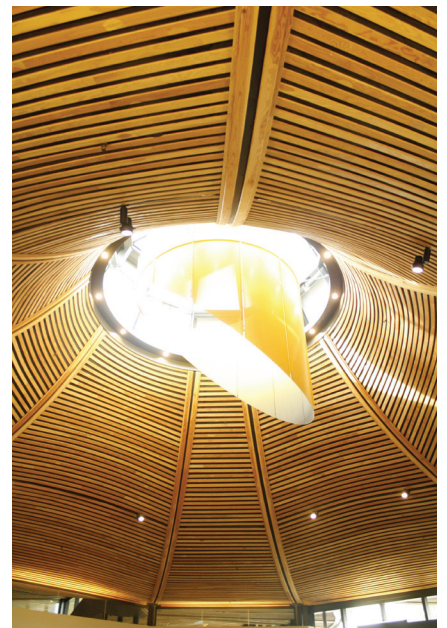
임진아 (201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본상 수상)

한국에서 목재로 된 건축물은?

하면 사람들은 먼저 한옥을 얘기할 것이다. 더불어,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궁궐, 봉정사와 같은 사찰들을 자연스레 떠올릴 정도로 옛부터 민가뿐만 아니라 궁궐, 사찰 및 관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중심에는 목재가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말 경제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수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건축재료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대체되어 자연스레 목재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갔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통나무 주택과 경골목조주택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최근 경골목구조와 전통 기둥-보 방식을 혼합한 신한옥의 개발 및 공학목재의 이용을 통한 대형 목조건축물에 대한 연구 및 건축 등으로 인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환경문제와 더불어 강화된 규제는 친환경재료인 목재라는 재료가 건축 용재로서 다시금 관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나와 같이 임산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질문거리를 던져주고 이를 해결하고 극복 해나가는 과정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부상으로 참여하게 된 2013년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는 이러한 질문거리의 해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다. 수상이 결정된 그 순간부터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가야 할 것은? 봐야할 것은? 등 머릿속에서 등실 등실 떠돌아 다니는 질문들을 정리하며 캐나다에서 받게 될 연수를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캐나다에 도착했다?!

연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예상하며 교육장소인 BCIT로 향하여 그 걸음걸음을 새기며 향하였다. 간단한 환영사와 함께 교육이 시작되었다. 목조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연수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효율적인 목재 자원이용을 위해 개발된 공학목재와 목조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를 위해 새로이 각광 받고 있는 CLT, 목구조 공법, 목구조의 화재와 차음과 수퍼 E하우스의 소개는 개론적인 내용으로 머물러 그 깊이가 좀 아쉬웠지만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수과정 중 가장 기대되었던 교육은 CLT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2009년 건축된 영국에 9층의 CLT건물과 뉴질랜드에서 발표한 30층 건물을 CLT로 제작계획 발표 등으로 목구조의 대형화·다층화를 이끌 차세대 재료로 집중을 받고 있는 CLT 관련 논문 및 해외의 건축 사례를 한국에서 미리 찾아볼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 한국에서 CLT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수업과 이에 대한 질문응답내용은 CLT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히려 캐나다에 와서 한국과의 차이를 확연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을 통해서는 주된 내용이 목재라는 재료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목조건축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 및 감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다. 캐나다의 감리 주체, 시점, 단계 및 내용은 목조주택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화, 차음, 단열에 그 성능을 시방서에 따랐는지 단순히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조주택에서 머물게되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살기 좋은 집이 사람한테도 좋은 것이 아닐까?



밴두센 식물원



휘슬러 스케이트장

캐나다에 오기 전에 “Woodworks” BC 홈페이지를 정리, 요약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Design awards의 수상작과 Case study에는 목조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종구나’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면서 당시에 무심히 넘겼던 것들이 캐나다 연수에서 현장방문이 시작되면서 2D 평면으로 스쳐지나갔던 것들이 눈앞에 4D - 목재의 향기와 함께 - 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규모와 용도였다. 전체 건축물의 약 70%가 목조로 이루어진 나라다웠다. 사람이 주거하기 위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를 차지하고서라도, 철재로 보강된 역삼각 형태의 단면을 가진 100m 스패의 아치구조와 2x4 규격제재목로 교차로 배치하여 구성된 지붕 구조를 가지는 리치몬드 빙상경기장을 필두로, 소각재로 우아한 곡선을 살려 식물의 잎속에 있는 것처럼 따듯하고 안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밴두센 식물원, 대단면 목부재를 가공하여 기둥-보로 형식으로 엮어 목재의 중후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던 스퀘미시 관광센터, 집성재를 이용한 2층에 상당하는 높은 건물의 기둥으로 활용함으로써 알래스카측백나무의 쪽 뺀어 있는 모습을 연상케하는 스퀘미시 릴랫문화센터, 집성재와 대형각재를 지붕구조에 활용하여 휘슬러지역의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한 휘슬러 공공도서관, 집성재와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지붕의 아름다움 곡선을 구성한 사이먼프레이저 대학은 이들의 대규모 구조의 놀라움뿐만 아니라 그 용도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곳이었다. 이 밖에서 병원, 경찰서, 학교, 불과 목재라는 그 묘한 대치를 떠오르게 하는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공공건물들 역시 목조로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잠시 들리게 된 그랜빌의 퍼블릭마켓 내부의 기둥과 지붕 역시 목재로 되어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이러한 목조건물의 모습에서 역시 방대한 목재자원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외로 다시한번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장소는 비몽사몽간에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하게 된 캠프 유통센터에서였다. 물론 하루에 유통되는 막대한 제재목량뿐만 아니라 이들의 98%가 인증된 산림에서 생산된다는 점이였다. 물론 캐나다는 산림의 85%가 인증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된 산림에서 수확된 목제품은 불법벌채를 방지하고, 추후 그린빌딩을 인증하는데 필요하지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역시 소요되며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가격이 인증받지 않는 산림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교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야하는데 과연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인가? 많은 궁금증이 떠올랐으며 생각나는 순간 곧장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린빌딩 인증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인증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건축주,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둔다면 싸고 좋은 물건만을 찾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한다는 점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자그마한 의문을 뒤로 하며 캠프 유통센터를 떠나 캐나다 연수 현장견학의 마지막 일정을 조용히 마무리지었다.

많은 생각거리를 가지고 떠난 연수였지만 사람이 머물고, 모여들며, 즐길 수 있고, 때론 스쳐지나가는 곳곳에 목재가 있음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캐나다에서의 10일 간의 여정이였다. 이들의 중심에 목재가 있기까지 캐나다의 풍부한 산림자원이 그 근원에 있을지 모른다. 한 걸음더 들어가, 그 바탕이 되는 재료, 목재에 대해 이용에 대해 고민하고, 시험하고, 분석에 들인 연구자들의 노력이 그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캐나다와 그 절대량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율은 세계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임목축적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125.9m³으로 상당한 산림자원의 양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목재지급율은 13.5%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도 목재를 활용한 건축의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과 올해 5월 시행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I LOVE WOOD 캠페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내가 캐나다에서 얻어 왔던 것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꼈점 모든 것들이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휘슬러도서관에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그랜빌 퍼블릭마켓

## 국내 목조건축 사례 블루웍스 출판사

조남호 (주)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대표



### 건축개요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대지면적 : 264.1m<sup>2</sup> (79.89평)  
 건물규모 : 지상 2층  
 주요용도 : 다가구주택  
 건물구조 : 경골목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 130.93m<sup>2</sup> (39.61평)  
 연 면 적 : 207.62m<sup>2</sup> (62.81평)  
 주요외장재 : 적삼목사이딩, 스테코, 브릭타일

### 북촌

북촌은 지난 수년간의 서울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활력 있어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전통적인 주거 지로서의 기능 보다는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는 상업지역으로 빠른 변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빠른 상승, 치열한 경쟁은 기존 거주민과 오래된 상점들을 몰아내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발 속도를 조절해 방문객보다 기존 거주민 들의 삶의 공간이 되도록 보다 섬세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 골목길의 회복 : 삼청동 27-8

블루웍스 부지는 북촌의 북쪽 끝 조선시대 무기고였던 번사창을 인근에 두고 있다.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던 지형 이 이 부지에서 급한 3개층 높이의 고저차를 보인다. 북촌로에서 이어



지는 골목길은 부영이박물관과 마주보는 이 부지 앞에서 끝난다. 우리 계획의 첫 번째 제안은 이 골목길을 연장하는 것이다. 부지 내를 통과해 감사원 앞길과 연결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북촌의 지구단위계획은 큰 규모의 단일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규모 있는 땅을 개발하더라도 작은 규모 시설의 집합으로 유도하고 있다. 블루웍스출판사는 레벨차를 이용해 3개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3개층은 내부동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지 내로 끌어들이는 골목길을 통해 서로 다른 방향과 레벨에서 진입한다. 서로 다른 3개의 건물이 골목길을 따라 수직으로 적층된 형태이다.

### ‘맛있는 배움, 맛있는 책’

블루웍스출판사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출판사이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되 오프라인 상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출판사는 지역사회 시설로서 북촌의 문화적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레벨차를 이용한 3개의 영역의 2층은 출판사의 업무공간이다.

1층은 부지가 갖고 있는 공간성을 극대화한 곳으로 북악산 전망 좋은 레스토랑 개념으로 설계된 연수교육공간이다. ‘맛있는 배움, 맛있는 책’을 모토로 좋은 음식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곳은 출판사가 세상과 만나는 통로로 기능한다. 전면 도로에서 접근되는 지하층 레벨의 전시와 이벤트를 위한 다목적 문화 공간이다. 전시공간 형태로 설계된 이 공간은 출판사의 출판 관련 이벤트와 북촌 지역사회의 전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 물성과 교감으로서의 건축

BLUEWORKS 사옥은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벽돌, 나무와 같은 자연적인 재료들이 만드는 구조와 마감은 우리의 시선이 질료의 순수성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층과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2층은 목구조이다. 외벽은 검은색 벽돌로 마감했다. 2층은 가볍게 느껴지도록 벽돌벽면을 알루미늄 띠로 분절시켜 내부의 구법을 암시하고 있다. 벽은 경골목구조이고 지붕은 두 번 절곡되어 리듬감 있게 흐르는 장변 방향을 따라 LVL(Laminated Veneer Lumber) 서까래를 보냈다. LVL 구조부재와 천장과 벽면의 낙엽송 합판의 색상도 같은 느낌으로 채도를 낮추었다. 목구조가 오브제처럼 보이지 않게 해 공간이 시각의 측면을 넘어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과 교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립대학교강촌수련원의 조인트가 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목재 속에 숨겨진 형태로 있던 것에 비해 블루웍스에서는 디자인된 구조철물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나무와 함께 공간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 해외목조건축사례 캐나다넷제로홈

글 구선영 / 사진 왕규태\_주택저널 기자

한국에 그린홈이 있다면, 캐나다에는 넷제로(Net Zero)홈이 있다. 모두 주택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취지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린주택이다. 그러나 실현방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넷제로홈과 한국의 그린홈 추진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며 한국 그린홈이 안고 있는 과제를 생각해본다.

캐나다는 지금 탄소배출제로화 시대에 대비해 '넷제로홈' 을 건설 중이다. 넷제로홈은 '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용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주택' 을 말한다.

캐나다는 넷제로홈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주택청(CMHC)의 주관으로 '이퀄리브리엄 지속가능 데모하우스 이니셔티브의 넷제로 에너지 공모전' 을 전개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선택한 다양하면서 실현가능한 넷제로홈 디자인을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한다는 취지다.

### 넷제로에너지하우스의모태 '슈퍼이하우스'

캐나다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에너지주택에 눈떴다. 국내에선 실험주택들이 간간히 지어지고 있는 초기단계인데 비해, 캐나다는 이미 80년대 초반 'R-2000' 이라는 에너지절약형 목조 주택을 보급해왔으며 '슈퍼 이 하우스(Super E House)' 라는 명칭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슈퍼 이 하우스는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해 가장 에너지효율적인 설계를 적용한 주택으로 에너지소비를 50~80%까지 낮출 수 있다. 캐나다의 슈퍼 이 하우스는 캐나다 전역에서 지어졌을 뿐 아니라, 1997년 일본에 수출되어 지금껏 150여채가 건설됐다. 영국에도 수출됐으며 한국의 경기도 포천에서도 최초의 슈퍼 이 하우스가 몇해전 준공됐다. 캐나다 목조주택은 다시 에너지제로주택을 목표로 뛰고 있다. 최근 보급이 시작된 '넷제로홈(Net Zero Energy Housing)' 이 그것이다. 슈퍼 이 하우스와 넷제로홈의 차이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있다. 에너지절약률을 50~80%까지 끌어올린 슈퍼 이 하우스에 추가적인 설계전략과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해 100% 에너지자급을 실현하는게 목표다. 결국 넷제로홈은 본격적인 탄소제로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 이 하우스를 진화시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단열과 기밀 시공, 자연채광을 활용한 설계전략만으로 부족한 사용에너지를 태양광,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찾겠다는 것이 넷제로홈의 요지다. 넷제로홈은 흔히 '1.5리터하우스' 로 불리는 유럽의 패시브하우스와도 비교된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과 냉난방부하를 줄이는 설계전략을 통해 연간 1㎡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1.5리터 이하인 주택에 붙여지는 명칭이다. 패시브하우스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면 넷제로홈과 다른없는 '0리터 하우스' 가 된다. 캐나다의 넷제로홈은 확정된 하나의 모델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스타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몇가지 공통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적용 △태양광을 활용한 디자인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건축법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요소로는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로이처리 창문 △유기농 텃밭 △고효율 난방장치 △폐기된 온수의 남은 열 재사용 △처마로 일사량 조절 △고성능 단열재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 가전제품 △폐수 재활용설비 △빗물 저장 및 재활용 시설 등이 있다.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4월~6월 활동사항

## 4월 4일 ~ 25일

### 충북대학교 건축학부 목조건축 특강

캐나다우드 정태욱소장과 최재철이사는 대학연계교육의 일환으로 충북대학교 건축학부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총 4주에 걸쳐 충북대학교 청주캠퍼스에서 특강을 하였다. 목조건축의 이해, 소형목조주택설계 및 모형제작 그리고 목구조 설계로 이루어진 이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목조주택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혔다.



특강을 듣고 있는 충북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

## 4월 13일

### 우드유니버시티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 과정) 14기 개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후원하는 우드유니버시티의 'WBI-목조공동주택 설계,시공,감리 전문가과정' 14기가 4월 13일 개강하였다. WBI과정은 8월 1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국내외 목조건축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준하여 경골목구조를 포함한 목조건축의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우드유니버시티의 교육 이수자는 캐나다우드가 주최하는 캐나다 다층 목조건축 기술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WBI(목조공동주택 전문가과정) 교재

## 4월 30일

### CWK-GICO-DSK 기술협력 약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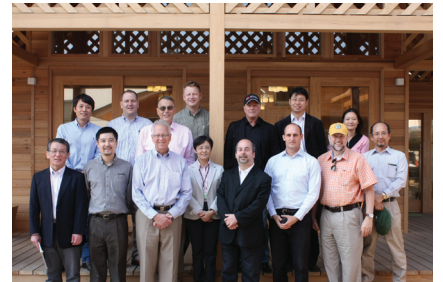
2013년 4월 30일 캐나다우드는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드림사이트코리아와 3자간의 기술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캐나다우드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141 세대의 가평 달전 지구 전원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본 협약 체결식에는 캐나다우드 그룹의 폴 뉴먼 회장, 경기도시공사의 이재영 사장, 드림사이트 코리아의 이광훈 대표 그리고 설계사와 시공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 5월 7일 ~ 9일

캐나다우드 아시아 매니저 회의 참가  
캐나다우드 아시아 지역 매니저 회의가 2박

3일 동안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지역 사무소 그리고 캐나다의 본협회의 담당자 등 16명이 참가해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진과 스나미 피해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해 캐나다의 지원으로 새로 지어진 어시장과 도서관 등 목조건물들을 견학하였다.



## 5월 11일

### SFS INTERNATIONAL FAIR 서울외국인학교 인터내셔널 페어 참여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함께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페어(SFS International Fair)에 참여하였다. Fair는 매년 5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로, 재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태권도 시범, 안전체험 프로그램,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고 축제에서 가장 큰 행사인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International Food Festival)에는 캐나다, 한국, 미국, 호주, 멕시코, 아일랜드, 일본 등 약 15여개 나라의 부스가 마련되어 각 나라의 대표되는 음식들이 판매되었다. 행사 수익금은 학교 자선단체에 기부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캐나다 음식들을 홍보하고 있는 캐나다 부스

## 5월 27일 ~ 28일

### 알버타주 Dan Wilkinson 국장 방한

알버타 주정부 댄 윌킨슨(Dan Wilkinson) 국장이 국내의 목재산업과 목조주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댄 윌킨슨 국장은 주한캐나다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목조주택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목조주택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7일에는 한국과 캐나다 외교수교 50주년 이 되는 2013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캐나다우드 & 건축전 특별전시' 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를 방문하였다. 28일에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및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버타 환경 및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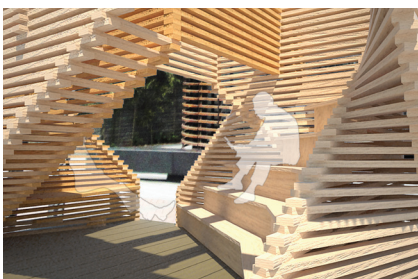
프리패브 공장에서 캐나다산 SPF를 둘러보고 있는 댄 윌킨슨 국장

## 6월 3일

### 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 'Best 5' 수상작품 발표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캐나다대사관과 캐나다우드에서 주최한 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 'Best 5' (우드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품이 6월 3일 공모전 홈페이지 ([www.wooddesign2013.kr](http://www.wooddesign2013.kr))에 발표되었다. 접수된 47개 작품 중에서 5월 30일 예비심사와 6월 1일 공개심사 후 'Best 5' 5작품과 'Finalist 5' 5작품이 선정되었다. Best 5 중 상금과 함께 가장 많은 부상이 수여되는 '캐나다우드, 주한캐나다대사 특별상' 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진호 지도교수와 손재준, 박진규, 윤형수 학생의 'Another Tree' 가 선정되었으며, 그 외 수상 작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 재료공학과와 캐나다우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골목구조 워크샵이 진주 캠퍼스에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는 인테리어 재료공학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와 건축환경공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3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 목조건축 시공에 관한 이론교육을, 둘째 날부터는 소형 목조 플레이하우스(Playhouse)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실습교육을 받았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향후에는 학과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Union Pavillion' 아주대학교 Best 5\_ 알버타주정부 특별상

## 6월 24일 ~ 28일

### 경남과학기술대학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7월~9월 활동계획

## 7월 8일

### 우드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캐나다 우드 & 건축전' 개막식 개최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의 기념 행사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주최한 우드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을 '캐나다 우드 & 건축전' 의 전시 개막식과 함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드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과 개막식이 함께 진행되어 수상자와 전시회 참여 건축가들, 각국 초대 대사님들, 목조건축 관련 업계 인사 등을 초대할 예정이며, 행사 전 기자 간담회도 진행하여 홍보를 할 예정이다.

## 7월 9일 ~ 26일

###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캐나다 우드 & 건축전' 을 개최한다.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드디자인공모전, 초대건축가 특별전, 멀티미디어전 등의 다양한 전시와 어린이 나무 체험교실, 일반인을 위한 목조 주택 세미나와 같은 전시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7월 12일 ~ 26일

### 9인 9색 목조건축 세미나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캐나다 우드 & 건축전' 특별전시 기간 동안 9명의 건축가들을 초대해 9인 9색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축가들은 그 동안 진행했던 목조건축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집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일반인들과 나누게 된다. 자세한 세미나 일정은 '캐나다 우드 & 건축전' 홈페이지 [www.wooddesign2013.kr](http://www.wooddesign2013.kr)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7월 19일

### (사)한국건축가협회-캐나다우드 목조 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사)한국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회원 건축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개발하여 발행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경골목구조편' 의 2013 개정판 소개와 캐나다의 건축공사 감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감리제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가와 건축사사무소 근무자, 목조건축 전문가는 참가신청서 사전 제출 후 참가할 수 있다.

## 8월 26일 ~ 30일

### CAN-KOR 'Wood Design Competition BEST 5' 수상작품 실물 제작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 - 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우드디자인 공모전에서 '캐나다우드, 주한캐나다대사 특별상' 을 수상한 인하대학교 건축학부와 공동으로 수상작품에 대한 실물제작을 진행한다. 우드디자인공모전의 수상작에게 수여된 특전으로 학생들이 디자인한 수상작을 직접 시연하여 실물제작하며 더불어 진행될 이론교육은 목조건축업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루어진다.

## 9월 23일 ~ 29일

###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경골목구조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경대학교 & 부산대학교 건축과와 공동으로 경골목구조 워크샵을 BEXCO 옥외전시장에서 '2013 부산경향하우징페어' 기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기간 동안 학생들은 경골목구조주택에 대한 이론교육 및 모형제작, 플레이 하우스를 실물 제작하는 실습을 하게 된다.

## 9월 26일 ~ 29일

### 2013 부산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벡스(BEXCO)에서 열리는 2013 부산하우징페어에 참가하여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에서 발행한 목조건축 기술서적을 무료 배포하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홍보하며, 페어 기간 중에 일반인을 위한 세미나 및 부산, 경남지역의 목조건축 관계자 초청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9월 27일

### 부산 목조건축 설계 워크샵 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부산 지역 건축사와 목조건축 전문인을 대상으로 캐나다우드에서 개발한 '목조건축 표준 상세 - 경골목구조편' 책자의 2013년 개정판을 소개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샵에 참가한 목조건축 전문가와 건축사에게는 목조건축 표준상세 책자(2013 개정판) 및 캐나다우드 기술 책자 등을 배포하여 목조건축 설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시회 일정]

8.29(목) ~ 9.1(일) / KINTEX

33회 MBC 건축박람회

8.29(목) ~ 9.1(일) / EXCO Hall B

제9회 하우징브랜드페어(추계)

8.29(목) ~ 9.1(일) / EXCO Hall A

2013 서울국제건축박람회

9.5(목) ~ 9.8(일) / EXCO

대구경향하우징페어

9.26(목) ~ 9.29(일) / EXCO

부산경향하우징페어



**Canada Wood**  
캐나다우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3층  
TEL : 02-3445-3834~5 FAX : 02-3445-3832  
[www.canadawood.or.kr](http://www.canadawood.or.kr)